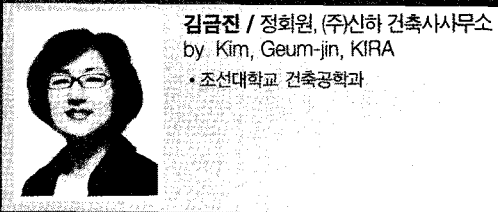


남산과 한 강사이에서 만나다

Meet at between Namsan and Han river

-제16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2010 CITY OF GR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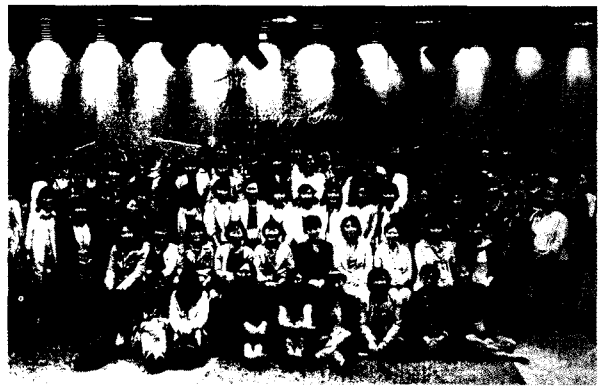
김금진 / 정회원, (주)신하 건축사사무소
by Kim, Geum-jin, KIRA
•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KTX를 타고

올해는 전국여성건축사대회가 5월 13~14일 서울에서 열렸다. 옛 본협회 건물에서 지 순 선생님과 첫모임을 가진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6년째가 되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대회라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얼굴들이 보이지 않으면 서운했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젊은 회원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알차지다보니 참가자가 많아서 몇 해 전부터는 선착순 80명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에도 신청 첫날 수 시간 만에 종료되어 대기자 명단에는 올려놓았지만 포기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구제되어 참석할 수 있었다. 후문에 여러 회원들이 대회에 참가하려고 1년 동안 기다린다고 하니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은 당연 한가 싶다. 앞으로는 원하는 모든 회원에게 참석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나는 광주에서 KTX 첫차를 탔다. 어릴 때는 새벽바람도 좋더니만 이제 일찍 서둘러서 어디를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을 보면 나이 탓일까. 이를 동안 사무실을 비우려니 정리할 일이 있었다. 새벽 5시가 되어가는 데도 일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서둘러 기차에 올랐다. 마음의 짐을 광주에 남겨 놓은 채 눈을 감았다. 기차에서 아주 달게 잠을 자고나니 서울역에 도착했다.

서울역 앞에 모여 있는 회원들과 짧은 인사를 했다. 광주회원인 박신남 건축사와 반가운 회원들이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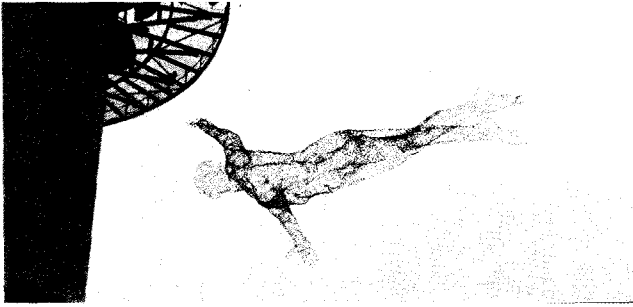


정기총회 단체사진

마침 선거 때라 모 연예인의 남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몇몇 회원들은 악수를 했다며 자랑도 했다. 우리는 2호차에 탑승했다.

N서울타워에 오르다

버스는 남산을 향해갔다. 이번 대회주제인 「남산과 한강 사이에서 만나다」 라는 아주 매력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남산에 도착하여 간단히 비빔밥으로 시장기를 달랜 후 남산케이블카를 탔다. 발밑 남산의 푸른 나무들을 어슬렁어슬렁 지나 서울의 중심이자 상징인 N서울타워에 다다랐다. 지금은 이름이 'N서울타워' 가 되었지만 아직도 남산타워가 입 안에서 맴돈다.



서울 타워의 빛의 영혼

케이블카에서 내려 몇 발자국 발길을 옮기니 한쪽 정자 옆에서 초등학교생들이 웅기종기 모여 점심 먹는 모습이랑 사진사 아저씨의 카메라 들고 다니는 모습, 젊은 연인들의 미소와 연세 드신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푸른 나무들만큼이나 여유로워 보인다.

명소가 되어버린 타워 주변의 펜스에 뺨뺨이 매달려있는 '사랑의 자물쇠'들이 맹세를 다짐하듯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리고 하늘에는 '빛의 영혼'이라는 프랑스 유명작가 세르디 르보르뉴의 조형물이 공중에 메달려 남산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두 팔을 벌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에 놀라움과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니 흐린 유리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한강의 다리들과 많은 건축물들이 빼곡히 서 있다.

전망대 내부벽면에 한장 한장 사연이 세겨진 아름다운 타일하며 루우프테라스, 전망엘리베이터 홀의 아름다운 천정조명, 또 일명 '하늘 화장실'은 남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화장실로 전면유리창에 소품 같은 세면대가 화장실이라기보다 휴게실처럼 잘 꾸며져 있어 꼭 들려 볼만하다.

회색빛 돌담위의 담쟁이덩굴과 조금 높은 듯 한 목재계단을 정장차림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오렌지색 승복을 입은 인도스님들의 편안한 미소가 울창한 녹음 빛과 어우러져 눈부신 길을 비추주었다.

남산 국악당에 가다

N서울타워를 뒤로하고 최초의 국악공연장인 남산 국악당이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에 도착했다.

넓은 한옥마을 마당에는 공연 관람자들이 모여 있고 유치원 아이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국악당은 전통민가 보다는 한 단계 높여 공공권위의 형식이 도입되었고 대지의 흐름을 따라 위계별로 건물의 자봉이 중첩되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건축되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신 국악당내 감독님이 처음엔 사용상의 불편한 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설계자는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설계 과정에서 꼭 반영해주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내부공연장은 한옥으로 꾸며진 여유롭고 아늑한 330석의 공연장으로 객석보다 낮은 무대와 우물천정의 설치로 음향기기가 없더라도 라이브가 가능하고, 뒷마당인 화계가 아름답게 꾸며진 신이내린 건축물이라 극찬하였다.

덧붙여 국악당이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생활 속에 접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잊지 않았다.



국악당 감독님과 함께



한옥마을 앞 단체사진

미래의 섬 한강 플로팅 아일랜드를 보다

남산을 벗어나 숙소(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인 타임 스퀘어로 향했다. 이번 대회의 드레스 코드는 '섹시 앤 드레시'로 Green색 의상을 입도록 약속했는데, 아빨싸 새벽에 서두르다보니 상의만 가져왔다(치마는 깜박). 그래서 재킷 속에 그린 상의만 입고 라운지에 내려가니 모두 불만이다. 멋진 그린 옷을 입은 사람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발톱메니큐어나, 기털장식이나, 목걸이, 이어링, 모자까지 그린색이라고 우기며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버스를 타고 총회 장소인 한강변의 수상건축물 마리나 제페(Marina JEFF)로 향했다.

퇴근시간 전이지만 길이 막혀, 각간에 자기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말들을 잘하지 리포터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청산유수들이다.

자기인생의 심계명을 말한 회원이나 나이를 과일로 표현한 회원, 또 학원을 운영하는 회원 등 긴 시간은 아니지만 서로를 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러는 동안 목적지에 도착했다. 마리나 제페의 위치 때문에 서울에 살면서도 처음 온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 월드컵 열기와 함께 TV광고에 나오는 해안 건축사무소가 설계한 한강플로팅 아일랜드의 3개의 섬이 건설되는 현장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 꽃의 이미지인 플로팅아일랜드(제1섬: Island Vista 만개한 꽃, 제2섬: Island Viva 꽃 봉우리, 제3섬: Island Terra 씨앗을 테마로 설계되어 건설 중이었다. 지금은 골조 공사중이고 일부는 지상에서 골조가 형성된 후 수면에 정착하여 공사중인데, 한강의 수심과 Fisst Floor Plan 기준점 때문에 어려운 점도



1. 행사장 풍경 2. 청암노인요양원 후원금 전달 3. 지 순 선생님 건배제의 4. 원정수 교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섬들이 준공된다면 한강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마리나 제페의 정기총회

1부는 우리회원만 참석한 스탠드 총회를 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대한여성건축사회 황정복 회장님의 개회사와 이재림 전회장님의 격려사, 이아희 감사님의 감사보고가 끝나고 전임 회장님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2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첫 번째 안은 신입감사인 김희경 회원이 선출되었다. 두 번째 안은 내년 전국여성건축사 대회가 광주광역시로 선정되었다. 제주도도 추천되었지만 20차를 위해서 남겨놓기로 했다.(사실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내심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지만 황정복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그렇더라도

내년 대회 때의 불거리를 지금부터라도 찾아봐야겠다. 총회를 마치고 창밖으로 멀리 한강다리가 보이는 윗층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2부는 황정복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주셨다. 축사에 조정식, 남경필 국회의원님과 환영사는 이덕수 서울특별시 부시장님, 격려사는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다. 후원금은 청암노인요양원에 전달되었다.

황정복 회장님의 반강요인 듯 대회 협찬 약속과 여성건축사의 일에 대한 참여를 다짐 받을 때마다 만찬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들의 인사말을 듣다 보니 너무 배가 고팠다. 겨우 축하 말이 마무리되고 지 순, 원정수 두 분 건배제의를 마지막으로 멋진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야 창밖에서 모터보트소리가 나고 다리에서 비추는 한강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만찬이 끝난 후 3부는 원정수 교수님의 워크숍이 있었다. 우리 여성건축사의 영원한 큰언니이신 지 순 선생님과 부군인 원정수 교수님과 함께 참석하셨다. 사실 원 교수님의 성함은 많이 들었지만 처음 뵈는데 마음씨 넉넉한 이웃아저씨 같은 친근한 얼굴이다. '부부건축사가 함께한 건축외길 50년'에서 많은 작품의 주안점과 에피소드를 들려주시고, 특히 여성의 설계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다. 올해 건축인생 50주년을 기념 책자로 발간하셨는데, 200권이 넘는 책자를 일일이 서명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휴대하기 편한 책자의 내용 중 두 분이 아주 다르지만 닮았다는 문구는, 외모는 다르지만 건축에 대한 열정은 같다는 뜻이 아닐까 혼자



16차 스탠드 총회 중



수상 파티장에서

생각해본다.

워크숍 마무리에서는 지순 선생님의 눈치를 보시는 듯 하면서도 하실 말을 다하시는 모습이 여느 부부랑 다를 바가 없어 정겨워 보인다. 후학 양성에 열정을 보여주신 두 분께 감사함이 우러나온다. 공식적인 행사를 마친 후 총회를 했던 곳으로 내려왔다.

음식과 와인 준비 되어 있었다. 물위에 흔들리는 불빛과 검은 슈트를 입은 아름다운 싱어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노랫소리 그리고 잔속의 붉은 빛 와인이 출렁이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다. 싱어 노래에 따라 L·O·V·E를 외치고, 능숙한 남자 진행자의 진행으로 퀴즈 맞추기와 오늘의 최고의 드레스 그린 퀘를 뽑는데, 무대에 나온 회원들이 망설임 없이 현란하고 섹시한 몸동작에 모두들 박장대소하고 웃었다. 내빈들도 참석하여 멋진 브루스도 추며 즐거움을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손을 손을 잡고 '노사연의 만남'을 부르며 마무리를 했다. 오늘 하루는 길지만 멋진 날이었다.

아침 7시 모닝콜 소리에 잠을 깬다. 비즈니스호텔이라 넓지 않지만 욕실과 전실의 벽면이 전면 유리라 훤히 내다보이므로 사용 시 블라인드를 쳐야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시각적인 협소함은 감소된 것 같다. 맛있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호텔사진 몇 장만 찍었을 뿐 타임 스퀘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제 행사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2동의 오피스빌딩과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할인점 등 대단위 복합시설물인 Time Squire를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여의도 선착장으로 향했다.

한강유람선을 타다



한강 유람선 안에서

시원한 바람과 물결을 가르며 달려가는 유람선에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에서는 여성건축사의 권익과 사회참여의 장을 넓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대전, 충남에서는 바자회나 독거노인 돕기, 음악회 등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여성건축사의 위상을 높였다고 한다. 부산도 처음에는 조그마한 쌈지공원 등 공공시설 물에 여성건축사들이 봉사를 했는데, 이젠 다른 일과 연계되어 업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각 지역마다 노력하는 것이 내심 부럽고 대단하다. 많은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들으며 독점에 도착했다.

독점의 전망복합문화시설 '자벌레'에서

유람선에서 내려 독점을 조금 걸다보니 교각을 감고 있는 멋진 건물이 보였다. 일명 '자벌레(자형)'로 불리는 지하철역의 연결통로 및 전시 휴식공간으로 한강 공원화사업인 전망복합문화시설이다. 현장에는 대한건설팅의 노효근 감리단장님이 나와서 친절히 현장을 안내해 주었다. 뒤에 알고 보니 나와함께 대학 1학년을 다녔던 분이였다.(참 세상 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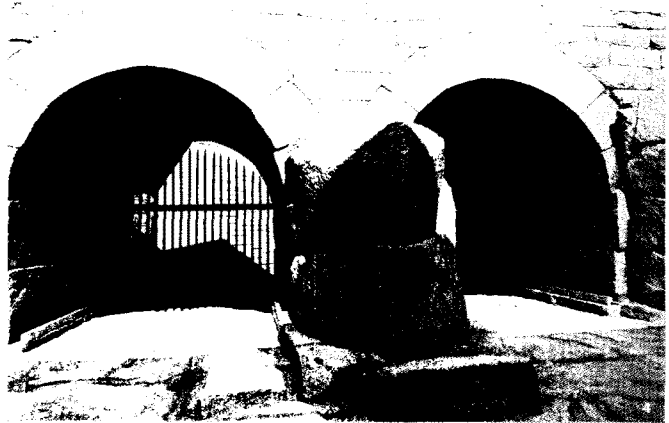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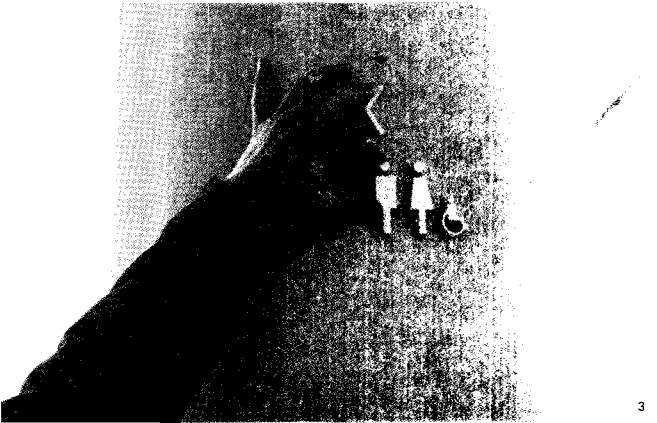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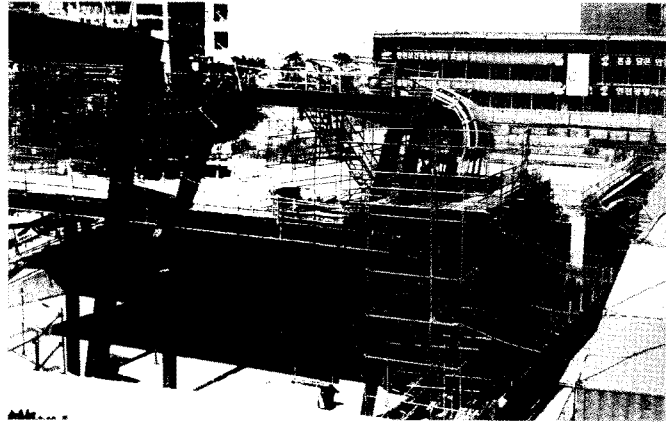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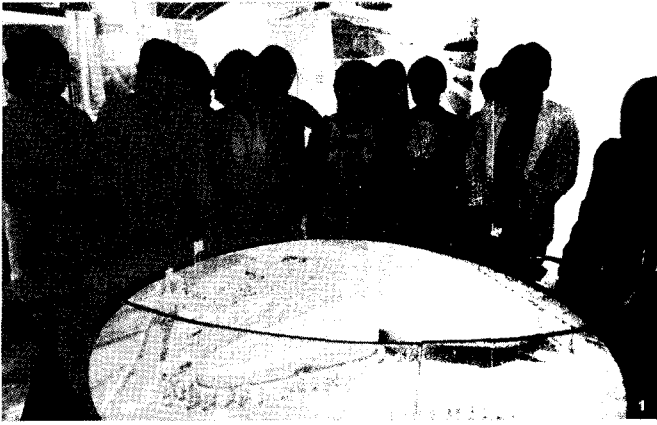
원통형의 외관이 알루미늄 패널을 비틀듯이 감아 시공 상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외피에 구멍이 뚫려있지만 내부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처리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한다. 내부는 편의시설과 레스토랑이 구획되어있고 전시공간이 오픈된 기다란 통로에 작품들이 전시 되어있는데,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전시공간의 활용에 적절한 시설이 필요해 보인다. 한강 만수 때를 고려해 건물의 높이를 정하고 지면엘리베이터와 자벌레 본건물의 상부 연결부위를 open시켜 물길의 지나갈 수 있도록 시공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면 한강주변의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은 한강 수심을 고려해야 한다. '자벌레'는 외관이 아름답지만 높다란 콘크리트 기둥사이에 끼어있는 모습이 조금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또 거대한 입처럼 보이는 통로 끝의 전망이 아파트 벽면이 아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채선당이라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신선한 야채를 적신 샐러드와 시원한 맥주가 갈증을 달래주었다.

모임 때마다 자주 뵈던 선배언니들이랑 테이블에 유쾌한 식사를 했다. 공숙 언니는 목포여중 선배님이라니(역시... 참 세상 좁다), 식사를 하며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대문역사문화 공원에 가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인 세계디자인 허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 파크 현장에 도착했다.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2010에 프로그램의 기반구축의 하나로 자하 하디드의 지명현상 당선안인 환유의 풍경은 '환유'는 특징의 사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수사적 표현을 의미하며, 또한 '풍경'은 인간과 그 환경 사이의 관계를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환유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풍경으로 만들고자 했다. DDP는 액체의 흐름을 연상시키며 마치 여자의 하이힐처럼 섹시하고 매력 있는 건축물로 2011년 말 준공예정이다.

시공사인 삼성의 안내로 홍보관에서 동대문운동장의 초기모습부터 현재의 건설과정까지 변천과정을 들은 후 옥상에 올라 동대문



1. DDP 견학 2. DDP현장 골조 공사중 3. 지하하이드 화장실 표시 4. 이간수문

디자인 플라자의 공사 중인 모습을 보았다.

DDP에는 전시·컨벤션홀, 디자인 박물관, 디자인 전문 전시관, 정보교육센터, 디지털아카이브 디자인 체험관, 디자인&미디어랩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아직 철골골조공사 단계지만 외피로 시공되는 곡선형의 4만5천여 장의 알루미늄 외장 패널이 BIM작업과 MOCKUP으로 관리된다고 한다. 현장 소장님의 안내로 먼저 개방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향했다.

조금 걷다보니 옛 서울운동장의 조명탑과 성화대가 멋지게 남아 있지만 옛날의 뜨거웠던 함성이 들리는듯 했다. 보행로 주변의 잘다듬어진 푸른 잔디 가장자리에 이어진 낮은 담장으로 복원된 옛 서울 성곽을 따라 가면 이간수문에 다다른다.

두개의 수문 가운데 놓여있는 커다란 삼각형의 뾰족한 돌덩이는 밀려오는 물길을 갈라 잘 빠져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놓았다고 하니 조상들의 지혜에 머리가 수그러진다.

축구장과 야구장 부지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군사훈련과 치안을 담당하던 하도감터 등 야외 유구전시장 공간도 깔끔하게 조성해 놓았다. 길게 늘어진 계단을 내려와 기념관으로 들어섰을 때 유선형의 벽체에 설치된 밀러 조각들 때문에 순간 입구가 막히지 않고 깜짝 놀랐다. 건물내부는 바닥을 빼고는 수직, 수평이 하나도 없는 콘크리트 구조체라고 하니 시공 상의 어려움이 가히 짐작된다. 화장실 내의 위엄 있는 높다란 칸막이문과 세면대위의 기우러진 거울하며 화장실 근처의 경사진 원형기둥에 높이 붙어있는 아주 작은 화장실

표시 위치까지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공정도 변경 없이 설계자의 의도라는 한마디에 일이 진행된다고 하니 우리의 설계현실에 비하면 내심 부럽다.

600년의 세월이 담긴 유물들과 미래디자인의 결정체인 DDP가 함께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앞으로 과거와 미래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멋진 장소가 될 것이다.

DDP를 마지막으로 전국여성건축사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버스시간이 쫓겨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아쉬운 작별을 했다. 남산과 한강을 뒤로한 채 서울을 빠져나오며 세계디자인도시에 걸맞는 또 하나의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DDP의 커다란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묻어내는 공원과의 어우러짐이 아닌가 싶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도 남산의 푸르름이 있어 숨을 쉬는 것 같다.

이번대회 중 DDP나 플로팅아일랜드는 다소 공정율이 낮아 아쉬움이 남아 완공 후에 다시 오리라 마음먹었다. 일박이일의 짧은 일정에도 견학코스랑 행사일정들이 퍼팩트하게 짜여져 아주 즐거웠다. 황정복 회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하며 특히 마리나 제페에서 의 아름다운 시간들은 쉬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2011년 17차 대회는 광주에서 뵈겠습니다. ■